

# 大學과 學問의 自由

李 敦 熙

(서울大 教育學科 教授)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의 제반 기능과 상호의존하는 관계에 있기에, 大學과 學問의 自由, 運轉의 自律, 社會와의 관계는 현대의 사회적 특징에 따라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大學의 理念, 특히 학문의 자유는 비록 그 傳統的 意味가 그대로 고수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現代的 삶의 조건에 비추어 재검미될 필요가 있다.

## 1. 序 言

大學은 인간의 知性和 그것이 관여하는 온갖 인간 능력을 계발하는 도장이며, 自然과 人間의 질서를 탐구하고 삶의 원리를 개발하는 創造의 生活의 본산이요, 大學은 인류의 경험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된 文化를 이해하고 비판하며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켜 온 문화사적 전통의 주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어떤 의미에서 現代文明은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창조되고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文明의 心臟」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대학은 特殊階層의 소수인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금세기의 중반 이전까지만 하여도 그 개방성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文明世界의 역사는 대학의 창조적 기능과 더불어 그 주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어느 시대에서

나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대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변화는 대학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을 요구하고 있다. 現代의 社會는 계급적—계층적 구조, 생활의 물리적—심리적 領界, 욕구 충족의 질적 형태와 양적 범위, 생산과 소비의 방식,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할의 관념 등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그 특징과 규모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University)이 시작하기 전의 것, 예컨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시움」, 중세기 서양의 修道院, 뿐만 아니라 동양의 大學과 우리의 成均館 등은 모두가 貴族社會 혹은 支配階層의 독점물이었다. 이들은 최고의 교육 기관이었으며 학문의 전당과 본산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는 근대와 현대의 대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분적 장벽이 있었다. 거기는 당

시의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自由人이나 兩班階級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에서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또한 그들의 지위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과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대학, 즉 서양의 중세기 말기에 형성되어 발달한 대학은 市民階級의 발달과 더불어 출발하였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12~13세기에 이르러 중세기적인 봉건제도가 점차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기독교적 스콜라 철학이 종래의 敎義主義的 폐쇄성을 극복하면서 비판적·분석적 학풍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地中海 연안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新興의 中産階級이 富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량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증산층의 시민제급이 발달하면서 종래의 도제교육 형태로 이어졌던 직업적·전문적 교육은 제도적·형식적 교육의 형태로 바뀌어졌다. 그리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거래하는 조합체의 형태(Guild)를 발전시킨 것이 근대적 대학의 출발이다. 이러한 근대적 대학은 고대나 중세의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즉 귀족주의적 자유인의 육성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문인의 양성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전문직은 의사, 성직자, 법조인 등이었다.

근대적 대학이 비록 증산층 시민제급의 흥기와 전문직의 발달과 더불어 형성되고 성장하였지만, 전통적 자유 학문적 특징은 이 새로운 대학체제를 다시 지배하였다. 대학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학문 공동체로서 발전하였으며 학문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근대의 절대주의 국가가 출현하면서 대학은 점차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잃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학문의 자유는 그것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자체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 방식, 즉 제도적 타율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근대 후기 대학들의 상당한 경우가 그 자체의 역량으로 존속하지 못하고

국가적 지원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의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운영의 자율, 그 자체의 개념적 기준을 흐리게 하는 많은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대학의 기능적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능적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학은 貴族階級이나 支配階級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적 특권을 영속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敎育機關을 뜻하는 「牧歌의 시대」의 대학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은 비록 국가적 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때로는 정치적 영향권의 안에서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는 나약한 사회적 기구로만 머물 수는 없지만,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의 제반 기능과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 운영의 자율, 사회와의 관계는 현대사회적 특징에 따라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大學의 理念, 특히 학문의 자유는 비록 그 傳統的 意味가 그대로 고수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現代的 삶의 조건에 비추어 재음미될 필요가 있다.

## II. 學問과 眞理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大學, 또는 어떤 형태의 最高學府는 學問의 탐구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學問을 탐구한다는 것은 眞理를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나, 學問과 眞理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해 왔다. 그만큼 大學의 기능과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眞理를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일을 뜻하는 學問은 大學의 정신과 이념이 관여하는 주된 세계이다.

고대 동양의 학문은 明德을 밝히고 대중을 그 이치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서양의 자유 학문적 전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實像을 뜻하는 「이데아」의 탐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의 경우에도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이데아를 탐구하는 데 있었고,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가 理想國家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문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眞理의 발견 그 자체에만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삶 특히 정치적 과정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다. 학문은 발견될 진리 그 자체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 삶의 원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宇宙의 질서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人間의 삶을 주도하는 原理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眞實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생활에서 요구되는 규범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도덕적 품성과 인격이 고매하다는 것은 그것이 「참다운 마음」을 소유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종교적 경건의 신비적 대상에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우주와 인간의 질서로 지배하는 「참다운 정신」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불후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참다운 상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제도가 정의롭고 관습이 덕스럽고 아름답다는 것도 그것이 「참된 도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설명하고 삶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학문,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 「참된 의견」임을 밝히는 것이다.

眞理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창조하고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明德을 밝힌다거나 이데아를 탐구한다는 것은 모두가 眞理探究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단지 眞理의 개념을 인식하는 방식과 부면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다소 다를 뿐이었다.

플라톤은 본래 眞理(이데아)는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말하자면, 진리란 현실 세계의 明滅하고 변화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세계에 영구불변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현실의 감각적인 세계에서 지각되는 「構造物」의 眞像을 찾는 것이다. 플라

톤에 의하면, 그것은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理性의 기능을 뜻하는 思惟에 의하여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은 「實體化의 謬誤」(the fallacy of reification)를 범한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위의 추상화에 의해서 성립되는 특성의 이름이 구체적인 實體의 대상을 가진다는 믿음이 범하는 오류이다. 「진리」란 존재하는 구체적 실체나 그러한 실체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에 관한 이해의 내용이나 원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것은 실체나 그 특성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관한 의견이나 믿음, 혹은 그 표현에 뜻하는 바의 質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세계와 인간에 관한 올바른 이해의 방식을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孔子的 「正名思想」은 오히려 실체화의 오류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펴고 있다. 공자는 사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인 「易」, 그리고 그 易의 내용이며 존재 방식을 뜻하는 「象」,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하여 전개되는 세계와 인간의 과정을 묘사하는 「辭」를 옮겨 정립한 것이 「正名」이다. 이 正名の 개념은 易과 象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물과 현상의 바른 서술 혹은 命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正名の 개념은 眞理의 개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실체나 사실이나 존재 그 자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관한 우리의 생각, 의견, 믿음, 주장, 서술, 설명, 이론 등, 즉 우리가 세계에 관해서 이해하는 바 대로의 표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진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가능한 언어적 표현에만 좁게 적용되기도 하고, 불확실하고 주관적이지만 공감이나 동조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표현을 포함해서 넓게 적용되기도 한다. 즉, 진리의 좁은 의미가 과학적 지식과 같은 객관적 인식의 대상에 한정된다면, 그것의 넓은 의미는 도덕적 주장, 심미적 표현, 그리고 신비적 믿음까지를 포괄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진리는 과학에만이 아니라, 도덕과 종교와 예술에까지 적용되며 人間事의 체계적인 행위의 모

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즉, 그것은 事實로서 존재하는 것에만이 아니라, 當爲와 審美와 神聖, 그리고 實踐原理에도 참과 거짓의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는 價値의「當爲의 객관성, 形而上學的 信念과 審美的 判斷의 認識可能性이 부인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眞理의 概念 그 자체를 정의하는 일과 眞理를 밝히는 판단의 準據를 정립하는 일은 哲學者들의 끊임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결말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진리의 탐구를 뜻하는 학문을 중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치 東洋人의 定義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인증이 모인 중에서 동양인을 찾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아니듯이, 진리의 정의와 기준(혹은 준거)을 명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주장, 의견, 이론, 판단 등의 진위를 실제로 분별해 내고 있다. 그것이 결말을 보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假說」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가설의 편의적 수단에 의하여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허위에서는 벗어나고자 한다. 사실상 엄격히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설」이라는 말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眞理란 우리의 일상적 생활의 과정에서 쉽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구름 속에 고고하게 숨어 있는 고답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진리는 지혜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聖人이나 탁월한 大學者의 專有物도 아니다. 이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허위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않다. 인간의 知性史에는 진리의 탐구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큰 별들」이 있지만, 이들의 탁월성은 진리를 말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독자성이 발휘되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이론도 반드시 진리로서 보장받지도 못하며 그들의 업적은 순수히 독창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의 탁월성은 오히려 진리에 매

한 검허한 자세와 부단한 정열과 집요한 노력과 날카로운 성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이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업적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추구와 더불어 이루어진 그들의 생애이다.

대학의 전통적 이념인 「學問의 自由」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그리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노력과 그 업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학문은 그 의미에 있어서 넓게도 이해되고 좁게도 이해된다. 직업적·생산적 생활의 관련성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고대 그리스인의 학문은 자연과 인간의 질서에 관해 인간의 이성이 작용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뜻하며, 진리는 그 질서의 본체 혹은 그 본체를 이해하는 원리를 뜻하였다. 그들의 학문은 眞善美의 본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과 도덕적 모습,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체도 보편적 원리로서 존재한다고 믿었다.<sup>1)</sup>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학문의 개념과 진리의 의미는, 좁게는 고전적 이해방식에 한정되기도 하였지만, 넓게는 인간의 삶, 특히 생산적·경제적 생활의 부문까지를 포괄하는 삶 전체에 적용되며 반드시 순수히 이론적인 영역에만 한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에 학문과 진리의 개념을 그러한 고전적인 것에 한정한다면, 특히 현대의 대학에서는 이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니, 학문의 자유니 하는 말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의 학문은 객관적 세계를 설명하거나 절대적 보편성을 상징하는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순수 이론의 領界에서만 작용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서 모든 창조적인 활동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진리도 그러한 원리들을 규제하는 이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게 되어 있다.

오늘의 대학은 이미 귀족계급이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학문과 진리도 그 집단에 의해서 독점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또한 학문의 탐구도 그러한 의미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두에

게 개방되어 있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쉽게 노출되지가 않는다. 더우기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의 과정에서 손쉽게 확인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연의 과정이나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질서와 그 이치에 관한 것일 때는 진리란 영원히 숨겨질 수도 있다. 사실상 엄격히 말해서 인류는 진리를 획득한 역사를 가져 본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란 획득된 진리를 주장하는 자유를 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류의 文明史는 眞理의 意見과 理論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에 의한 업적이다. 물론, 거기에는 허다한 허위와 오류의 자취도 남아 있고 진리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벽들도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탐구를 위한 학문의 자유란 探究의 倫理的 準據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진리를 말하려는 윤리적 요구이다.

### Ⅲ. 學問의 倫理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생활의 방식과 기술의 원리를 학문의 初心者들을 상대로 가르쳐 學問社會의 새로운 성원으로 양성하고, 동시에 진리에 접근하는 의견과 이론을 개발하여 학문을 성장시키며, 이를 보급하여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인류 세계에 봉사한다. 학문을 탐구하는 원리와 교육하는 원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학문을 교육한다는 것은 곧 탐구의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며, 학문의 탐구는 또한 교육의 과정을 규율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은 학문의 탐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구이지만, 진리에 대한 독점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전반적 과정은 진리의 이념에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 탐구의 윤리, 즉 학문의 윤리는 생활 일반의 윤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진리란 진실을 말한 것이며 진리에 관해서는 엄격히 말해서 의견만이 있을 뿐이다. 진리를 말하는 일에 있어서의 傲慢이란 누구의 특권으로서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欺瞞이

나 僞造가 있을 수 없으므로 성실이 요구되며, 진리란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학문의 탐구는 생활 일반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만큼의 덕목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는 開放性이다. 생활의 다른 장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학문의 생활에서는 독선주의와 폐쇄주의와 배타주의는 기본적인 악덕에 속한다. 독단 혹은 독선은 경직된 사고의 특성으로서 오류를 은폐시키고 비판을 거부하며 맹목을 고수하는 심성이다. 더 이상의 탐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독선과 독단에 의해서 폐쇄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학문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적어도 독선과 독단에 의해서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에 대하여 懷疑가 가해질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탐구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성장도 없다. 그러한 심성의 소유자는 배타적이므로 어떤 도전에든 방어적이며 다른 신념의 소유자와 학문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다. 자신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학문은 타협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독단과 독선은 진리의 획득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체의 모순을 부당하게 은폐시킨다.

개방성은 곧 자기 비판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정직과 겸손의 미덕을 따르는 자세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여 학문공동체에서 公認받하고자 하는 노력의 자세이다. 그것은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自律性이다. 자율성이 없이 개방성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할지는 모르나, 진리와 허위를 분별하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자성과 창조성의 기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극단의 경우에 그에게는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전적인 진리와 전적인 허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방성이 없는 자율성은 개성을 소유하고 독자성을 구사할지는 모르나,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자신의 모순과 허구를 은폐시킬 수가 있다.

개방성은 학문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고 거기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조건이라면, 자율성은 개성과 창의성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학문의 생활에서 모방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적어도 학문의 공동체에는 어떤 형태의 전통과 관습이 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추종해야 할 권위를 언제나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문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방은 선택적이며 선택은 곧 자율을 행사할 때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세계는 批判性이다. 비판은 오류를 찾아내고 생각이나 이론의 타원성을 분별해 내는 노력의 특성이다. 그것은 반드시 타인의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개방성은 어떤 의미에서 비판에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율성은 엄격히 말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의 자율성이기도 하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학문 집단과 탐구인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으며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진리라고 믿거나 허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비판적 결론일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비판을 견디어 내고 있음을 뜻하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진리라고 오랫동안 믿어졌던 많은 권위 있는 이론과 사상이 오류나 허위라고 밝혀지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비판을 견디어 내지 못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학문은 그러한 비판의 과정과 더불어 발달해 왔다. 어제의 진리를 오늘의 허위로 전환시키고, 그리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원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곧 비판성의 덕목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거부하거나 비판이 의미 있게 가해질 수 없는 생각과 이론은 진리를 향한 길에 장애물을 두고 있는 셈이다. 독단과 독선에 지배되고 있는 신념은 비판을 거부하며, 증거나 反證을 구할 수 없는 신념에는 비판이 의미 있게 가해질 수가 없다. 즉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은 진리일 수도 있으나 허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확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신념은 학문의 세계에서 별로 의미를 지

니지 못한다.

비판은 社會性이다. 학문하는 일은 사회적 과정이다. 개방성의 덕목이 의미를 지니려면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내어 놓고 이를 검토하고 비판할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자율성이라는 말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형태의 타율적인 힘이 잠재되어 있을 때 덕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비판성도 비판의 주체와 객체가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진리란 탐구의 과정이 지향할 「規制理念」일 수밖에 없다.<sup>2)</sup> 그러므로 우리는 학문의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신념, 주장, 이론, 학설 등 이해 방식의 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생각이나 이론은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확실성의 정도를 검열받고 그만큼 객관화되며, 그것이 비판에 견디고 있는 동안 진리 대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므로 사회적 과정은 학문 탐구에서 요구되는 언어를 형성하고 그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생각과 이론을 객관화하며 성장시키고 보급하는 학문공동체에서 전개된다. 대학은 바로 학문 공동체의 전형적인 것이다.

때때로 학문은 무엇의 도구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비록 그것이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서는 일차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은 그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므로, 진리에의 집착이 요구하는 만큼의 윤리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생활의 다른 부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나 부차적으로 하고 있다면, 학문의 윤리적 제약은 더욱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 Ⅳ. 學問과 生活

學問과 生活一般이 얼마나 폭 넓게 서로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大學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學問」이라는 말은 探究行爲를 가

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그 行爲의 結果로 얻어진 생각이나 지식을 조직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탐구행위로서의 學問은 어떤 종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問題란 欲求의 좌절이나 갈등을 의미한다. 인간의 욕구는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신비와 질서를 탐색코자 하는 고도의 이론적 욕구에서부터 일상적인 경험 과정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욕구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개인적인 습관과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서 쉽게 충족되는 욕구도 있고 체계적인 사고나 시행착오적인 과정에 의해서 비로소 충족되는 욕구도 있다. 욕구 충족의 과정이나 결과가 단편적이어서 이론적 체계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고도의 논리적 형식을 갖춘 이론적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다. 그리고 探究의 결과, 즉 체계적인 문제 해결의 결과가 일상적인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용적인 응용을 초월한 순수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체계적인 思考를 요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思考와 探究 行爲는 근본적으로 욕구의 충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며, 관습과 제도, 그리고 학술적 이론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적 소산이다.

그러므로, 探究行爲의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사실상 고도의 논리적 체계를 가진 學問的 理論과 실제적 유용성을 위하여 개발된 잡다한 생각이나 情報나 實踐의 原理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단지 倫理的 體系性의 수준에 따른 연속선 상의 위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實用的인 目的을 위한 탐구 행위는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가히 知的 活動으로 행하는 학문과 어떤 목적을 위한 실용성 때문에 행하는 학문을 구별하고, 전자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데 비하여 후자는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전자는 自由人에 적절한 것이라면 후자는 생산에 종사하는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인의 교육은 실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학문, 즉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학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노예나 생산계급의 교육은 일상적 유용성에 비추어 생산성 있는 기술이나 요령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유인의 교육은 인간의 理性 혹은 마음의 작용을 위한 것이라면 생산계급의 교육은 신체의 작용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성 혹은 마음의 단련을 위한 교육에는 논리학, 수사학, 문법 등의 三學이 기하학, 대수학, 천문학, 음악 등의 四藝보다 더 능률적인 교과라고 여겨졌다. 그 이외의 생산적 실용성으로 의미를 지니는 기술이나 기능은 별로 교육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교육은 한가한 귀족계급의 자유인이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도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순수한 학문은 이성의 기능을 뜻하는 지적 욕구의 충족이며, 궁극적으로 실천적 지식과 기술은 신체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본 것이다. 교육, 특히 고도의 학문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은 생활의 전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지적 활동을 삶의 내용으로 하는 생활에만 의미 있게 관련을 가질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지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며, 7개의 자유 학문 교과는 마음의 단련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믿어졌다.

이와 같이 마음의 단련이 교육이라고 믿은 전통은 17세기에 이르러 能力心理學이 체계화되었을 때 소위 「形式陶冶의 教育論」을 낳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能力心理學은 19세기 말기부터 현대적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퇴조되고, 인간의 능력, 예컨대 기억력, 추리력, 창의력, 의지력 등이 그 자체로서 도야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버렸다.<sup>4)</sup> 종래의 數學이나 論理學도 그것이 인간의 사고력, 추리력 그 자체를 도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과라고 여겨야 할 근거는 지지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요컨대, 인간의 마음을 도야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교과 혹은 학문의 영역이 있고 그것은 생활에의 유용성과 관계 없이 가치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도야된 마음 혹은 이성의 작용은 일상적인 실용성과 아무런 상관 없이 그 자체

의 가치를 지닌다는 교육관과 학문관은 정당화 되기 어려운 것이다.

사고의 능력의 원천으로 여기는 理性 혹은 知力은 반드시 실용성과 무관한 순수한 이론의 경지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 과정에서 작용한다. 探究行爲는 바로 지력의 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탐구의 생활과 그와 구별되는 생활이 별개로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지력의 작용 과정을 학문적 탐구 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문적 탐구란 적어도 어느 수준의 체계적 활동을 뜻한다. 그렇지만, 그 「어느 수준」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한계는 모호하고, 단지 상대적으로 말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이론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도의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구체적 삶의 상황에서 잠시 떠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일상적 과정의 실용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우기 오늘날의 사회, 특히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생산성과는 무관한, 그리고 사회의 기능적 분담이 아닌 특권의 행사로서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의 消手段으로서 아무런 실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理論的 探究가 정당한 윤리적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질 수도 없다. 오늘날의 학문적 탐구 행위는 아무리 고도의 이론적 탐구이고 현재의 실용성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기능의 일부이며 그런 한에서는 일종의 「일」에 속한다.

그러나, 학문하는 것이 일종의 일이라는 것과 대학은 모든 일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비록 현대 사회의 대학이 일로서의 학문을 교육과 연구의 내용으로 삼는다고 해도, 대학이 관여해야 할 학문의 수준과 학문의 규범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없다면, 대학은 그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대학이 관제해야 할 학문의 수준은 고대에서 근대로, 그리고 현대로 이룰수록 이론적 순수성을 잃어 왔으며, 마침내는 그 領界가 매우 모호하여졌고 오늘날에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용적 교과목들이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실

용적 학과들이 설치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이론적 탐구를 독점하던 귀족계급 혹은 특수계급이 몰락하고 사회계층 구조의 계편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순수 이론과 순수 실천의 극단적 양면이 질적으로 메타적인 二元論의 원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불과한 것이며 이론과 실천이 특히 산업화의 과정에서 점차로 보다 밀착되어 왔다는 데 있다. 어느 계층의 과업은 이론에 관한 것이고 다른 어느 계층의 과업은 실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실천의 과정이 복잡하고 체계화되면, 그것은 고도의 이론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론의 탐구가 공허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에 관한 것일 때, 그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천 원리를 도출하는 원천이 되거나 그 자체가 실천 원리의 기능을 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이론과 실천의 밀착성은 대학이 관여할 학문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수준은 대학의 전통에 따른 요구에 의해서나 학문의 질을 결정하는 수준의 특정한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어 가고 있다.

그 학문적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대학은 전통적인 자유 학문 교육의 원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自由學問教育은 가르치는 내용을 위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위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 내용을 위주로 자유 학문 교육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설정된 교과목의 성격으로 특징짓게 되며, 주로 고전이나 고도의 이론, 즉 현실적 실용성과 무관한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위주로 자유 학문 교육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실용성 그 자체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교육의 어느 과정에서나,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에 자유 학문 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고전이나 고도의 이론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자유 학문 교육을 가르치는 내용을 위주로 생



작하는 현대 교육사상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헛친스(R.M. Hutchins)이다.

교육은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지식은 진리이다.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이다. 그래서, 교육은 어디서나 같은 수밖에 없다……. 5)

교육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지성(intellect)을 개발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지성의 개발은 만인에게 다 같이 가치 있는 것이다. 더우기 그것은 모든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하는 본질적 가치이다. 물질적 풍요, 병화와 사회질서, 정의와 도덕적 덕목들은 모두 지성의 개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6)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불리우려면, 누구나 배워야 할 영원한 학문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학문 내용이 우리의 지적 유산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일반 교육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7)

헛친스에 의하면 인간의 지성, 이성, 마음, 지력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무엇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인 古典의 학습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동일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용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 내용은 가변적인 경험의 내용이므로 인간의 본질 그 자체와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헛친스의 이러한 교육관은 적어도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능력심리학적 사고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二元論的 분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전통 사회의 귀족주의적 편견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가 능력심리학적 사고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다른 특성, 예컨대 감성이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체가 별도로 도야될 수 있다고 믿으며, 진리의 지식을 배움으로써 그것이 도야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지성을 도야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학문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그

영원한 진리의 학문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진리를 소유해 본 경험이 있다는 어떠한 주장도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한 것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헛친스는 그 지적 유산으로서 이론적 업적을 뜻하는 학문,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유 학문과 일상의 변화무상한 현실에서 요구되는 온갖 종류의 원리나 이론으로서의 실천과정을 분리시키고, 실천적 생활에 선행해서 진리의 학문이 어떤 형태의 순수한 이론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에 지배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그가 신봉하는 진리에 대한 토미즘적인 독선이다.

끝으로, 그가 대학의 기능은 영원의 진리를 뜻하는 학문의 내용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학은 어디까지나 전통적 귀족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대학은 고전적 학문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삶에 다소, 때로는 상당히 초연한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일관할 때 대학은 「상아탑」의 전통을 고수하여야 하고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고고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오늘의 대학이 거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대학은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 유리된 채로 외딴 섬처럼 남게 되고 현실적인 삶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특권의 세계를 남겨 두는 셈이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고도의 이론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 삶의 과정에 초연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도하고 새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데 무관한 것이라면, 학문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따름이지 삶과는 무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진리가 반드시 고도의 이론적인 학문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학문이 반드시 현실적인 삶과 분리되었을 경우에 격조 높은 진리의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일상 생활은 아무런 학문적 통찰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 V. 學問의 自由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학문의 과제라고 하더라도, 진리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모습대로 노출될 수만 있다면 사실상 「학문의 자유」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대개 진리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어떤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사상이나 이론을 독선적으로 고수하고 다른 종류의 탐구 행위나 주장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성향이 야기시키는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甲의 주장의 의심할 수 없는, 참으로 초인적인 全知의 눈으로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다른 주장도 거부하고 거기에 강제적인 힘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것을 독선의 악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력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에의 절대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지력의 소유자가 주장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인류의 역사에서 학문의 자유는 때때로 진리의 주장 그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어떤 학자 집단을 탄압한 결과로 위협을 받은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일차적으로 사회적 투쟁의 산물이지 학문적 대립의 형태는 아니다. 학문의 자유가 체계적으로 위협을 받은 것은 어떤 종교적 도그마나 교조주의적인 배타성이나 독선주의적 폭력성이 사회적 권력이나 세력에 편승해 있을 때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한 위협적인 권력이나 세력의 정당성은 언제나 진리 주장에 대한 절대적 근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왔다. 진리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불확실성은 누구든지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거기에 권력이나 세력을 편승시키면 반대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

한 진리에의 주장은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말할 때에 요구하는 진리에의 겸허한 자세와 개방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학문의 자유는 결코 독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甲의 독선주의와 乙의 독선주의가 만나는 곳에서는 대립과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독선주의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흔히 정열적인 학도들이 형성한 학파간의 상충과는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진리에의 성실한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학파적 대립은 있는 법이다. 이러한 학파적 대립은 아무리 개방적인 탐구자들로 형성된 학문공동체일지라도 있게 마련이다. 학파적 대립은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나 획득한 증거에의 집착 심리의 정도로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어느 한편의, 혹은 제 3의 보다 충실한 증거나 논증에 의해서 해소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대립된 관점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세계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종결될 수가 있다. 물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해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선주의자들의 대립과 투쟁은 학문공동체의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들 사이에서의 해결은 결탁, 타협, 타도 등의 힘의 역학적 작용에 의한다. 그 결과가 진리에 얼마나 접근했는가에 대한 공동 확신은 별로 중요한 것이 못된다.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는 영원히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탐구를 어느 단계의 수준에서 종결시키고 그 종결된 결과로써 절대적인 주장을 할 때, 거기에는 독선주의의 악덕이 편승하게 된다. 어떤 학문적 주장도 그것의 객관성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학문의 탐구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로서 끝나는 것일 수가 없다.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말은 적어도 학문 공동체에서의 公認性을 뜻하는 것이다. 그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로서의 「가능성」이 주장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公的 證據와 公的 論證을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학문의 탐구에 의한 진리의 주장이 확

실성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떤 권위나 신앙이나 직관에 의한 주장은 비판과 수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학문에 의한 주장은 엄격한 증거와 논증을 탐구의 행위가 지녀야 할 公的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학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학문의 발달에 커다란 계기가 되고 획기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은 어떤 개인의 상상력, 창의력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나 발상이 개인에 의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학문 탐구에서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방법은 다른 방법과는 달리 그것이 정립한 이론이나 주장을 공적인 지식의 체계로 客觀化하고 社會化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적 탐구의 결과로 주장되는 것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방식의 주장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학문은 오류 그 자체로 끝나지 않으며 무의미한 오류가 아닐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학문은 오류의 이론에서 성장과 발전의 출발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학문은 엄격히 말해서 오류를 지닌 종전의 업적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학문의 자유는 단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에 대하여 관용을 허용받을 자유를 또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학문은 불완전함을 기본적으로 상정할 때 성립하는 것이며, 그 불완전성 때문에 성장하고 발전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불완전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대로 신뢰받을 수 있게 된다. 학문에서의 주장은 정지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완전한 학문적 주장에 대하여 독선주의적 폭력이나 맹목주의적 신뢰가 작용할 때 더 이상의 학문공동체적 노력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독선주의적 폭력은 흔히 자신을 비판에 개방하지 못하는 심성의 소유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면, 맹목주의적 추종은 탐구의 자율성을 잃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위이다. 둘은 모두가 비판을 외면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맹목주의적 추종은 후진 사회의 학문 세계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탐구자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진리의 추구에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학문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탐구자의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탐구자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탐구 과제와 문제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탐구를 위한 세계를 보는 안목이 상당히 탐구자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은 엄격히 구분하기 힘든 것이지만, 전자는 비록 사물을 보는 패러다임이나 탐구의 방법론을 외계로부터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으로써 성립시키는 탐구의 과제와 문제 의식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보다 근원적으로 탐구자도 그 자신이 일상적인 삶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한에서는 그 사회의 삶의 조건에 따른 탐구의 세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구생활은 탐구자가 자율성을 잃으면 소위 「문화적 식민주의」에 지배되어 외계로부터 도입된 패러다임이나 방법론을 맹종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추구할 수 있는 탐구의 세계에서도 맹목에 빠질 수가 있다.

학문의 자유란 독선주의와 맹목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래 어느 경우에도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소극적 의미로도 이해되고 자신에 대하여 자율적 통제를 행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듯이, 학문의 탐구에 있어서도 자유의 개념은 그러하다.

대학은 學問共同體이다. 대학은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을 교육하고, 또한 전래된 지식과 기술을 검토하고 선택하며 개선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의 본산이며, 대외적으로 그것을 공급하고 확산하면서 봉사하며 유지하는 전통을 가진 사회적 기구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는 그 공동체가 누려야 할 제 1의 이념이며, 이를 위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때의 자율성은 물론 자체 충족적인 고립된 기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외부와의 상호 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은 교조적 도그마, 사회적·정치적 폭력, 획일주의적 횡포 등 진리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중단시키거나 편협성을 강요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독선주의나 배타주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권위의 추종을 강요하거나 선동하는 풍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세째, 탐구를 위한 사고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혹은 제도적 운영의 경직된 압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네째, 사물에 대한 관점과 진리에 대한 신념의 다양성을 허용하여야 하며 탐구의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탐구의 자율성과 생각의 창의성과 비판의 개방성이 학문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생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탐구의 행위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 조건에 대하여 최선의 지원과 관리가 따라야 한다(여기서의 「최선」은 반드시 「쾌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학문공동체에서 기대되는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의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대외적 봉사과 협조는 대내적 활동의 질을 증진시키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아홉째,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은 탐구의 정

열과 번학의 정신이 침체되거나 폐쇄성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활성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부대적 조건들이 따라야 할 것이지만 위에 든 사항들은 가장 중요한 항목들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추상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理解와 解釋의 多樣性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이다. 학문, 그것은 전통적인 귀족주의의 대학관에서 상정한 개념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오늘의 개방사회에서 요구되는 학문, 즉 고도의 이론적 순수성과 현실의 실용적 필요성을 양극으로 한 광역의 학문이며 그 탐구에 요구되는 자유의 개념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며, 대학은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은 그것으로써 인류 문명사의 대세를 지배해 왔다. \*

#### <註>

- 1) 물론 소피스트들 가운데는 「變化」와 「可變性」을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고 진리와 가치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었다.
- 2) 金麗詩, “眞理란 무엇인가”, 金泰吉外 共著, 現代社會와 哲學(서울:文學과 知性社, 1981), pp. 31-36.
- 3) Aristotle, “Politics”, bk. VIII, ch. 3, in J. Burnet, *Aristotle on Educ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3).
- 4) Walter B. Kolesnik, *Mental Discipline in Modern Education*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2), ch. 3.
- 5) R.M. Hutchins,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6), p. 66.
- 6) *Ibid.*, p. 67.
- 7) *Ibid.*, p. 70.